순창 고소득 농업인 대폭증가

지난해 순소득 5000만원 이상 222농가… 전년 대비 176명 늘어

순창군의 농업정책이 효과를 발하며 고소득 농업인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군은 1월 12일부터 2월 2일까지 읍면을 통해 조사한 결과 지난해 순소득 5000만원 이상 농업인이 222농가로 전년 176명보다 26% 증가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 전인 2011년 157명보다는 65명, 41%정도 증가한 수치다. 1억원 이상 고소득 농업인도 67명에 이른다.

경영유형으로는 수도작이 9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축산 61명, 특작 36명, 원예 14명, 과수 11명 순이다.

소득규모별로는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55명, 1억 이상 2억원 미만이 55명, 2억 이상 3억원 미만이 4명이다. 3억 이상 4억원 미만 1명, 특히 4억원 이상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농가도 7명이나 포함돼 있다.

읍면별로는 쌍치면이 49명으로 가장 많고 복흥, 동계면 순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순창군의 고소득 농가가 늘어난 것은 농가들의 위기극복을 위한 노력과 함께 순창군이 친환경 농업과 농식품 6차 산업을 군정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순창군은 2012년 이후 친환경 농업에 380억원을 투자하는 등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비용 고효율 친환경 경지면적도 1,131ha까지 늘어 났다.

순창 고소득 농업인 영농현장

또 2014년 농식품 6차산업 지구로 선정돼 한식뷔페 레스토랑건립, 농특산물 직판장 리모델링 등에 20억원을 투자하여 농산물 판매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대비해 백향과, 무화과 등 신소득 작물을 발굴해 집중 육성한 것도 소득 증가에 한몫을 하고 있다.

블루베리, 쌈채, 매실 등을 지역 대표 10대 작물로 선정하고 이를 규모화하기 위한 시설지원과 함께 유통지원을 추진한 점도 주 요인으로 분석됐다. 가격 상승, 유가 하락 등도 일정 역할을 했다.

황숙주 군수는 "1억원 이상 고소득 농업인과 함께 5000만원 이상 잠재 고소득 농업인이 크게 증가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농업의 지속적 확대 육성과,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할 대체작목 확대 보급을 통해 농민들의 소득 창출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앞으로도 친환경유기농업특구 등 저비용 고소득 친환경인프라 확충과 농산물 직판장과 도시민 직판행사 등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농업소득을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순창=구인규 기자

별을 보며 과학의 꿈 키운다

순창군 '제1회 별 헤는 밤' 행사 개최

순창군이 '제1회 순창군 별 헤는 밤 행사'를 진행해 아이들과 주민들에게 천문에 대한 지식전달과 함께 미래의 꿈과 희망을 키워 주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23일 저녁 문화의집 동아리방과 옥상에서 진행된 이날 별 헤는 밤 행사는 순창군이 주최하고 군 별사랑 모임에서 주관했다.

50여명의 군민과 학생들이 참여해 2시간 동안 망원경만들기, 신비로운 우주과학 영상, 별과 행성 관측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순창교육지원청 및 별사랑 모임 회원이 보유한 굴절 및 반사망원경 4대를 설치해 관측행사를 진행했다.

또 유대영 장학사 및 천문관측 활동을 해온 5명의 선생님들이 강사로 나서 달과 겨울철 별자리, 행성에 관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줘 아이들이 우주에 눈을 뜨고 미래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행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 "천문과학 분야에 대해 재미있는 설명과 함께 여러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또 장영실의 발명품인 혼천의가 만원짜리 지폐에 그려져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황숙주 군수는 "청소년들에게 과학기술에 대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오늘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천문교육 강좌 개설, 읍면 순회 천문관측행사, 천문관측 장비 설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 말했다. /순창=구인규 기자

열린 문화공간 '남원루' 제막식 열려

문화마켓 · 제막행사 · 남원루 투어 등 이어져

남원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착착 진행중에 있다.

문화도시조성사업의 일환인 남원루 조성사업이 1차 완공이 되어 '남원루 제막식'을 24일 예가람길 남원루에서 개최했다.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진행된 이번 행사는 장소디자인 프로젝트 '남원루 조성사업'의 결과물 중 예가람길에 조성된 남원루를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문화마켓을 시작으로 제막행사 및 남원루 투어 등으로 이어졌다.

특히 문화마켓은 오픈마켓과 체험행사의 형태로 남원루안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됐다.

7개의 문화관련 협동조합과 체험마을 참여하는 문화마켓은 팔찌, 석고방향제, 가죽조각보손거울, 도자기페인팅, 코사지브롯지 만들기 체험을 무료로 진행하고, 각 체험마을의 대표적인 상품을 다양하게 선보였다.

이후에도 페스티벌이나 문화가 있는 날 등 다양한 문화행사의 공간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평상시에는 예가람길 일대의 공예상점 및 시민의 작품을 전시할 전시대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남원루 투어는 버스를 타고 완성된 4개의 남원루(예가람길, 구역사, 남원역, 십수정)를 작가와 함께 둘러보는 행사로, 디자인을 제안한 젊은 작가의 대상지별 작품을 직접보면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시 관계자는 "남원루는 '함께 만들어간 문화공간'이라는 점에서 뜻 깊다.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열린 문화의 장이 더더욱 많아져 문화도시남원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고창군 '정책개발 아카데미' 운영

고창군이 공직자들의 역량 발휘와 정책개발과정의 체계적 교육을 위한 '정책개발 아카데미'를 운영했다.

군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부안격포 대명리조트에서 직렬별, 직급별 대상자 30여명을 선발해 체계적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정책개발 아카데미'는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 의뢰해 개개인의 역량을 발휘하고 정책개발 교육과정을 통해 1인 1정책 과제 발굴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운영됐다.

군은 팀장과 신규공무원이 함께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토론을 통해 관습을 타파하며 선배공무원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해 업무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순창군, 3·1절 호국영화 상영

21일 동안 1일 3회 고종황제와 의사 안중근 · 동주 · 귀향

순창군 작은영화관에서는 제97주년 3·1절을 맞아 독립을 위해 싸운 조상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기기 위해 다양한 호국영화를 상영한다.

이번 호국영화 상영은 3·1절 전후 21일 정도의 기간 동안 상영된다.

상영 작품은 고종황제와 의사 안중근, 동주, 귀향 3개 작품이며 1일 3회 상영된다. 특히 3·1절 당일에는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 주관으로 '고종황제와 의사 안중근'을 오후 2시 50분부터 1회 무료 상영한다.

'고종황제와 의사 안중근'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히로부미를 암살하고 사형에 처해지는 과정까지의 치열한 독립운동가의 삶을 다룬 작품이다.

'동주'는 시인 윤동주의 삶을 그린 영화로 시를 쓰며 시대의 비극을 아파했던 주인공의 이야기가 장대하게 그려지는 작품이다.

귀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낸 작품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영화다.

군은 이번 호국영화 상영이 군민들에게 일제시대 독립을 위해 치열한 삶을 살았던 조상들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고 애국심을 고취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일제시대의 혹독한 삶을 영화로 보여줘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는데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황숙주 군수는 "3. 1절을 맞아 많은 군민들이 호국영화를 관람하고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구인규 기자

로컬플러스

남원 운봉파출소, 공폐가 일제수색

남원경찰서 운봉파출소에서는 개학철을 맞아 학생들의 학교폭력 장소로 사용될 우려가 높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주변 공폐가 7개소에 대해 집중 수색을 실시하였다.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공폐가는 각종 범죄장소 또는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등 탈선장소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집안 곳곳을 수색하며 노숙인 또는 청소년들의 범죄행위나 탈선 흔적을 살피고, 인근 주민들에게 공폐가에 학생 등 외부인 출입시 파출소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하는 등 홍보활동도 병행했다.

유현수 파출소장은 "향후 학교폭력 장소로 사용될 우려가 높은 공폐가에 대해서는 집중 순찰을 실시하고 지자체 및 소유주 등과 협력하여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유영철기자

고창 모양지구대, 한우2마리 구조

고창경찰서가 연이은 한우 구조로 화재가 되고 있다.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에서는 지난 22일 새벽 고창군 고수면 평촌마을에서 한우 2마리가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끈질긴 수색 약 5시간 만에 한우를 구조하여 무사히 인도했다.

지난 5일 고창군 성송면에서 한우 3마리를 구조한 후 17일만의 일이다.

현장에 출동하여 코뚜레가 없는 소(중소 1두,송아지 1두)를 발견하고 도로로 도주하는 것을 통행하는 차량과 추돌할 위험성이 높아 순찰차를 이용해 포획하기 좋은 장소로 이동시켜 밧줄을 이용하여 머리에 묶는 방법으로 구조해 안전하게 주인에게 인계하여 공감 받는 치안활동에 기여하였다.

정지훈 순경은 신임답지 않은 신속한 판단과 적극적인 자세로 '당황하는 주인과 함께 끈질긴 추격 끝에 소를 무사히 인계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하였다.

/고창=김영식기자

남원시, 다문화가족 이름 지어주기 사업 추진

남원시가 개명을 희망하는 결혼이주여성이나 출생아 출산시 작명가의 재능 기부를 통해 다문화가족 이름 지어주기 사업을 추진해 호응을 얻고 있다.

결혼이민자와 출생자녀에게 작명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무료로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한다.

김진석 대한노인회남원시지부장을 재능기부자로 위촉하고 다문화가정 신청자들이 읍면동 및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신청하면 이름의 뜻풀이와 함께 작명증서를 신청자에게 전달한다.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한법률구조공단남원출장소에서는 성·본 창설 및 개명허가를 무료로 지원하고 서류대행을 한다. /남원=유영철 기자

전북동부권고추 정기 주주총회

(주)전북동부권고추는 24일 심민 군수, 담당 과장 및 최완 농협군지부장, 이재근 농협 조합장 등을 비롯한 주주와 읍·면 대표주주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성수면 소재 '임실고추가공센터 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번 총회는 제8기(2015년) 결산보고, 주주 변동, 2016년 사업계획, 임원보수 등을 안건으로 처리하고 올해 운영전반에 관한 세부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주)전북동부권고추는 임실고추가공센터 운영을 맡아 지난해 1,247톤의 홍고추를 수매하고 세절고추 및 고춧가루로 가공해 총 36억원의 매출 실적을 올렸으며, 올해도 홍고추 1,300톤을 수매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임실=진홍영 기자